

IT839의 세계화와 국제표준



김 선 배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IT839 전략, 그리고 국제표준

지난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점은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이 한데 모인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연된 와이브로(WiBro)가 기술 표준규격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중속 및 수입국에서 기술주도 및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진대계 정보통신부 장관은 와이브로 시연 개통식 후 가진 기자회견담회에서 “미국전기전자학회(IEEE)”가 지난 9월 대만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와이브로 기술을 대다수 반영한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인 802.16e를 완성해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고 현장에 참석한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는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성공에 대해 확신하며 자국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였으며, 와이브로라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특허, 우리의 표준을 전세계에 주장하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IT 839 전략의 8대 서비스 중 하나인 와이브로(WiBro ; Wireless Broadband Internet)는 향후 전세계 휴대인터넷 단말기 및 네트워킹 기술의 표준으로 확정돼 3.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한국 기술로 주도하게 될날이 멀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성과가 아닐수 없다.

KT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와이브로 기술이 인텔 주도의 ‘모바일 와이맥스’보다 한 발짝 앞선 기술 경쟁력을 공인받고 상용 서비스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시장 선점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어 관련 IT산업의 수출효소가 예견되고 있다.

IT강국의 그늘

그동안 우리나라는 IT란 무기를 들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IT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국가경쟁력 세계 11위로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의 1등 공신은 IT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그들은 암울했다. 정보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전세계 CDMA와 GSM 단말기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고,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4대 중 1대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는 등 피상적 잣대를 통해 나타난 IT강국의 위상 이면에는 최근 3년간 우리가 켈컴에 지불한 1조 4,000억 원의 로열티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CDMA 분야에서 켈컴의 기술은 너무도 확고하고 앞으로 WCDMA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입장은 IT전문가들의 지론이다. 국제표준이란 그런 것이다. 기술표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선점을 통한 막대한 파워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IT분야 국제표준시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나 기업에는 국제표준화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실제로는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국제표준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천기술은 말 그대로 여러 갈래 상용기술의 본바탕이 되는 기술이어서 후발 IT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힘든 실정이며, 원천기술 사용료를 주는 후발국들과 이를 받는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제표준화까지 겹쳐 국제표준으로 인정 받은 선진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후발국은 막대한 기술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IT기술의 해외마케팅 및 세계화 전략과 표준화 활동간의 거시적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IT 국제표준화 활동의 성과와 향후방향

그동안 우리는 국제표준화 활동강화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은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IMT-2000 표준, ADSL 표준, 구내통신설비 관련 표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TTA 단체표준으로 3,700여 건의 기술표준을 제정하였고 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IT핵심분야 33개 전략 표준화 포럼을 선정·지원하는 등 표준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ITU, APT 이사회 참석을 통해 국제표준 논의 등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



으며, 제24차 APEC/TEL 및 ITU 아·태 여성정보화 워크숍을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홍보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였다.

음성 및 데이터의 결합과 더불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정보통신과 가전의 결합 등이 동반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문명도구들이 정보통신과 결합·융합되어 가고 있고 또한 전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준화되면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제활동도 완전개방적 체제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부처간, 기업간 협력과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범정부적 청사진을 수립해 IT산업 해외진출 전략과 IT국제표준사업 방향이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계획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T839 세계화 전략과 연계된 국제표준 활동이 필요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산하기관과 이동통신업체, 전자업체, 시스템통합업체 및 보안업체와 함께 u-Work 인프라 조성을 위한 포럼을 결성해 환경조성에 필요한 SW, HW 표준화와 법제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정부가 IT839 정책을 수행하면서 원천기술의 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병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국제표준이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개발 중인 기술에 유리하게 정해진다면 이 분야의 원천기술이 곧 세계시장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화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산 IT제품의 국내시장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험인증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하고, 표준 시험방법 및 평가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며, 정부간 협력을 통해 주요국가와의 상호인정 추진방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의 IT원천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IT제품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IT839 국제화 및 세계화 전략과 연계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TA**